

Propylene, 2월 700달러까지 상승

1월13일 중국 오퍼가격 670달러 ... 2월 FOB Korea 650달러 상회 전망

프로필렌(Propylene) 가격이 1월13일 중국 구매가격 기준 톤당 670달러까지 오퍼가 나와 1월 셋째주 톤당 45달러 급등 이후 급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렌은 1월 둘째주 한국가격 강세로 중국 및 타이완 가격이 CFR 톤당 630달러대를 기록해 상승세를 탔으며, 무역상들이 추가상승을 예상하고 공급을 보류했다.

1월13일 중국 오퍼가격이 톤당 670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국내 무역상들의 반응은 2월 프로필렌 가격이 CFR 톤당 650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프로필렌은 1월16일 FOB Korea 톤당 665-675달러로 또다시 60달러 급등한 바 있다.

프로필렌의 중국 오퍼가격이 톤당 670달러까지 급등함에 2월 CFR China 가격이 6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 2월 FOB Korea 톤당 700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필렌 공급기업 관계자는 “1월 셋째주 현재 프로필렌 거래물량이 없으나, 중국 오퍼가격이 670달러까지 상승해 협상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프로필렌 생산기업 중 2월 Spot 거래가 가능한 곳은 S-Oil과 LG-Caltex정유가 있으며, S-Oil은 생산능력 16만톤에 8만톤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 프로필렌 가격상승은 나프타(Naphtha) 가격폭등과 프로필렌을 비롯한 Olefin 운임이 톤당 150-160달러로 2003년 상반기에 비해 20-30달러 인상됐고, PP 가격이 Homo·Raffia 그레이드 기준 1월 톤당 780-800달러까지 오르는 등 인상요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26>